

글로벌 헬스케어 IT기업을 향한 도전

인피니트테크놀로지 이선주 대표

의료영상 솔루션 전문기업 인피니트테크놀로지가 헬스케어 IT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움닫기에 나섰다. 이제 국내 PACS 시장의 선도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속의 기업으로 'Quantum Jump' 하겠다는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의 200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다.

요즘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디지털화된 의료영상 시스템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엑스레이 필름을 손수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도, 필름 분실로 인한 갈등도 이제는 옛말이 되었다. 한번 촬영한 의료영상은 고스란히 디지털 데이터로 보관되고, CD에 담겨 다른 병원에 전달될 수도 있다.

이처럼 의료환경을 진일보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기업이 바로 인피니트테크놀로지다. 이 회사는 10년 전 국내 처음으로 의료영상 시장을 개척하고 시스템 발전을 주도해 온 장본인이다.

“월 4500건 정도의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예로 들었을 때, 1년으로 따지면 5만 4천건에 달하는 영상이 생성됩니다. 이때 필름 구입과 현상,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원가량이죠. 따라서 의료영상 솔루션을 도입하면 아예 필름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고스란히 1억원을 절약하게 됩니다.”

인피니트테크놀로지 이선주 대표는 이외에도 의료영상 솔루션의 장점으로 몇 가지를 더 꼽는다. 의료영상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 병원 간 원격진료를 실현할 수 있고,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편리한 진단을 가능케 한다는 면에서 의료영상 솔루션이 가져온 의료환경 변화는 무척 고무적이다.

PACS 시장의 강자로 부상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은 전 세계적으로도 연간 13.4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망사업 분야이다. 현재 국내 의료시장의 PACS 보급률은 병상 수 기준으로 60% 이상. 국내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는 단연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의 몫이다.

“1998년 한국 PACS 업체 중 최초로 미국 조지타운대학병원에 수출을 시작한 것이 해외진출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이후 세계 19개국 800여 병원에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의 이름을 알리며 글로벌기업으로의 부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수출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의 해외법인을 솔루션 판매와 연구개발까지 겸하는 조직으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은 인피니트테크놀로지가 글로벌 헬스케어 IT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현지에서의 브랜드 정착을 실현시킴으로써 수출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다년간의 경험과 우수인력을 갖춘 인피니트테크놀로지는 해외진출에 자신감이 넘친다. 국제표준 100% 준수, 높은 연동성, PACS와 3D의 자체 개발능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내놓으며 세계 시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병원의 ‘Filmless’ 를 구현하는 Full PACS 전문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 또한 같은 맥락이다.

Vision 2012 원년 선포

올해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신제품 ‘INFINITT G3’의 성공적인 런칭이다. 2년여의 개발기간을 거친 ‘INFINITT G3’는 의료영상 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시스템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솔루션에서 2D와 3D영상을 진단하고 의료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려놓기 위한 후속 R&D 투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과감하고 집중적인 R&D 투자는 인피니트테크놀로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세계를 무대로 앞서나가려면 기술력에 승부를 걸어야 하니까요. 아울러 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기술 개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피니트테크놀로지는 6년 후의 청사진을 제시한 ‘Vision 2012’에 따라 헬스케어 IT 전 분야로 사업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INFINITT G3’는 글로벌 헬스케어 IT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의 핵심 기술이다.

“지난해까지 외형적인 규모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성장전략을 펼칠 것입니다. 연간 6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Global Top 10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를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야심작 ‘INFINITT G3’를 앞세워 힘차게 새해 포문을 연 인피니트테크놀로지. ‘Vision 2012’ 프로젝트의 원년을 맞이한 이선주 대표와 직원들의 각오는 자못 비장하다. 의료영상 분야를 넘어서 헬스케어IT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는 의료환경에 청신호를 밝히며 건강한 미래를 기약한다.